

書 評

한·중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6·25전쟁

— 김경일(金景一) 저, 홍면기(洪冕基) 역,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기원: 한중관계의 역사적·지정학적 배경을 중심으로』(논형, 2005) —

이 완 범*

1992년 한중관계의 정상화 전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양국 관계는 현재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와 문화 등 여러 분야까지 확대되었다. 이제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하고는 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한중관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번역된 김경일(金景一) 저, 홍면기(洪冕基) 역,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기원: 한중관계의 역사적·지정학적 배경을 중심으로』(논형, 2005)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중국의 6·25전쟁 참전에 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었으나¹⁾ 그 기원을 한국, 북한, 중국, 대만 4자 관계의 차원에서 조망한 것은 이 책이 처음이다. 이 책은 필자의 북경대 박사학위 논문 보완본을 번역한 것으로 중국의 심화된 연구경향을 반영하고 있다.²⁾

역사상 중국은 명나라와 청나라, 그리고 6·25전쟁 등 모두 세 차례의 결정적 시기에 한반도로 군대를 파견하였다. 이 책은 이러한 파병들에서 현실적인 이데올로기의 공유, 동일한 국제질서의 일원이라는 관계, 지정학적 이해의 고려가 공통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1950년 파병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 보다 훨씬 복잡한 국제환경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 원인 또한 매우 복합적이었다. 그러나 한중관계사라는 긴 흐름에서 6·25전쟁은 이전의 역사와 완전히 유리될 수 없는 역사의

* 한국학중앙연구원 부교수, 한국정치사 전공
1) 이완범,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한국의 연구성과, 자료와 논점」, 『한국전쟁 중 한국의 참전전략과 포로문제』, 한·중 국제학술세미나(2001년 10월 25일), 39~60쪽
2) 홍면기, 「중국의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변화」, 『전사』, 제4호(2002), 205~248쪽.

재현(再現)이라는 측면 또한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는 반복된 것이라는 주장을 도출할 수 있다.

만약 미국이 핵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북한을 공격한다면 중국은 또 다시 개입할 것인가? ‘역사는 또 반복될 것인가’가 이 책에 관련된 오늘의 화두이다. 이 책의 주제인 ‘한반도와 중국의 긴밀한 유대관계’의 맥락에서 해답을 구한다면 ‘중국 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중국은 16세기 임란 때의 항왜원조(抗倭援朝), 1950년 6·25때의 항미원조(抗美援朝)와 같이 형제국 조선을 구하기 위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논평자는 그 가정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칠 의사가 있다면 실행하기 전에 중국의 불개입을 얻어내기 위해 반드시 중국과 외교 교섭을 할 것이다. 미국은 현 국면에서 중국과의 대결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의 불개입을 이끌어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중국은 북한핵에 대해 미국과 같이 우려하지만 한반도 전체가 미국의 패권아래 넘어가는 것은 더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에게 북한은 해양세력인 미국과의 대결을 완화시킬 수 있는 완충국이다. 중국에게 북한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최후의 순간 중국은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하려할 것이므로 미국이 중국의 개입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1950년에 이어 한반도에서 미중대결이 재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공격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의 북한 공격 위협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려는 일종의 으름장이다. 북한은 미국의 이러한 위협을 대내결속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오히려 핵무기 개발의 정당화 명분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협론은 북한과 미국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수사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 한다면 테러국에 수출하려 한다면 미국이 개입할 것이다. 그때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물론 핵무기 개발과 사용을 포함한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만약의 사태 발생에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역사에서 가정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기는 하지만 1950년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할 수 있다. 김일성은 1949년과 1950년 소련·중국과 대한민국에 대한 도

발을 모의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개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1949년 3월 김일성의 전쟁계획에 대해 스탈린이 만류한 것은 대체로 미국 때문이었다. 1950년 1월 5일 트루먼(Harry S. Truman)이 중국문제에 대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³⁾ 따라서 스탈린은 미국이 한국에는 더더욱 개입하지 않으리라고 예측했다. 또한 2차대전에 지친 세계최강국 미국은 전후 타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여론이 미국 내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만약 미국의 개입이 확실했다면 1950년 4월 소련은 남침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6·25때 미국의 개입 후 소련이 취한 소극적 태도에서 미루어 추측할 수 있다. 소련은 미국과의 직접 대결을 회피했던 것이다. 또한 ‘만약 미국이 개입하면 중국도 개입한다’고 공언했던 중국도 미국 개입이 확실했다면 그렇게 큰소리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소련과 중국이 적극적이지 않았을 것이므로 김일성도 세계 최강 국가 미국에 맞서 모험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당시 김일성은 애치슨이 미국의 방위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했다는 사실 등을 신뢰하여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으며 설사 개입을 하더라도 그렇게 빨리 물백하리라고 계산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빨리 진격한다면 미국의 개입 전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미국은 즉각적으로 개입할 것을 결정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전세를 역전시킨 유엔군은 서울을 수복했다. 38선 북진의 조짐이 보이자 9월 30일 중국 저우언라이(周恩來)는 “이웃 국가가 제국주의들에 의해 야만적 침략을 당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를 공갈로 받아들인 맥아더(Douglas MacArthur)는 ‘戰前 원상회복’이라는 전쟁 목표를 넘어서서 10월 8일 38선 북진을 단행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중국군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맥아더 원수의 판단을 믿어 유엔군의 북진을 계속 지지했다. 만약 중국의 개입이 확실했다면 트루먼은 38선을 넘지 말도록 지시했을 것이다.

따라서 1950년 한국에서의 미중대결은 오판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2005년 지금도 오판의 여지는 있다. 6자회담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미국이 중국과의 거중조정도 실패한 상태에서, 미국은 중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판

3) 이완범, 『한국전쟁』(백산서당 2000), 80 쪽

하여 북한을 공격하는 시나리오이다. 예전의 오판은 미중간에 외교관계와 정상적인 대화채널이 없어서 발생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채널이 있으므로 오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단지 미국과 중국이 세계의 패권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일 각오로 북한에서 싸운다면 혹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 그렇게 모험주의적 국가는 아니며, 중국이 초강대국은 아직 아니므로 가까운 시일 내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위와 같은 가정과 예측을 앞에 놓고 드는 생각은 역사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의 변수로 역사를 재단하려는 결정론적이며 인과론적 해석은 문제가 있으며 여러 배경과 원인을 고려하는 복합론적 해석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유사한 역사인식을 김경일 교수는 프레드리히 엥겔스로부터 원용한다. 엥겔스에 의하면 역사의 최종적 결과는 항상 수많은 개별적 의지의 충돌로부터 생긴다고 한다. 엥겔스는 “역사의 무대에는 무수히 서로 교차하는 힘의 양, 무수한 힘의 평행사변형이 존재하며, 이들이 상호작용하여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다”고 해석했다. 유물론자이며 자연과학주의자 엥겔스는 그 대목에서 “역사는 자연사적 과정처럼 진행되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동일한 운동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맺고 있다. 이렇게 역사에 법칙성이 있다는 의견에 평자는 동의하지 않지만 엥겔스의 인식에는 복합론적이고 상호작용론적인 해석이 포함되어 있어 인용할 만하다. 따라서 김경일 교수는 6·25전쟁이 ‘전쟁 이전 전쟁’의 계속이며, 미소간의 냉전구도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무수히 교차되는 힘과 힘의 평행사변형”의 상호작용이 초래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역사에는 여러 요인이 있으며 그 요인들이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는 것은 매우 정당하다. 그런데 여러 요인 중에 직접적 원인은 있으며, 나머지는 배경적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암의 원인처럼 원인과 배경을 분간하지 못할 때는 그 요인들 중 가중치를 매길 수는 있다. 저자는 미소의 한반도 분할점령이 한반도 분열의 외적 요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독립운동 시기에 이미 형성된 두 진영의 분열이 분단의 주요한 내적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운동 시기의 좌우분열은 분단의 배경이었을 뿐이다. 분단의 원인은 당초 분할점령으로 왔다. 민족 내부의 좌우대립(내인)은 외적 규정력(외인)을 강화시킨 배경에 불과했다는 것이 평자의 주장이다. 만약 외적 요인이 없었다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다. 맥아더·이승만·장개석3 자가 충돌을 부추겼다는 가설은 북침설과 연관되며 시대착오적인 가설이다. 필자가 중국에 있기 때문에 대만요인을 크게 보고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학계가 대만 요인에 대해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대만 요인은 하나의 흥미로운 가설 거리를 제공하는 주변적 배경으로서 간주할 수 있다. 북한·중국·소련 북방3각관계는 6·25 전쟁 발발의 원인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에 맞선 한국·미국·일본의 남방3각관계는 매우 느슨했으며 발발 국면에서 대만의 존재는 더 미미했다고 할 것이다. 중국 참전과정에서 대만은 매우 중요했을지라도 말이다.

참고문헌

- 이완범,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한국의 연구성과, 자료와 논점」, 『한국전쟁 중 한국의 참전전략과 포로문제』, 한·중 국제학술세미나(2001년 10월 25일).
- 홍면기, 「중국의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변화」, 『전사』 제4호, 2002.
- 이완범, 『한국전쟁』, 서울: 백산서당, 2000.